

정보통신분야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두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해당 외국기업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시켜 주는 원천을 피투자국 기업에게 라이선싱해 주는 것보다 내부화하는 것이 상업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해야 하고, 동시에 피투자국의 투자환경이 만족스럽다고 인식해야 한다.

이 한 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우리는 국가적 부도상황이라는 초유의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근원적인 원인은 경제 전반에 걸친 효율성과 유연성의 부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걸친 비효율을 제거함과 동시에 경제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경제를 크게 위축시키지 않고도 국제수지를 개선함으로써 외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다.

최근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외국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고성장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은 부가가치 및 첨단기술 집약도 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대한 산업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매우 크다.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자본유입이라는 국제수지개선 효과와 함께 기술수지의 개선이라는 부차적인 효과를 갖는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하여 우리는 외국 선진기업의 노하우를 국내에서 직접 경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한편 산업연관성이 높은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는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을 통해 실업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두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해당 외국기업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시켜 주는 원천을 피투자국 기업에게 라이선싱해 주는 것보다 내부화하는 것이 상업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해야 하고, 동시에 피투자국의 투자환경이 만족스럽다고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보통신시장은 경제성장과 정보화 수요의 반영으로 적어도 시장규모라는 측면에서는 외국인투자를 유인하기에 손색이 없다.

그러나 시장개방에 대한 저항감, 정부규제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 부족, 노동시장의 경직성, 생산요소 비용의 상승등으로 인해 내부화 동기 및 투자환경 측면에서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투자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걸친 모든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우호적이고 유연한 제도운용을 위하여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정보통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우호적인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을 서둘러 진행하고, 기존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개선에도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아래에서는 단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정보통신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추진을 들 수 있다. 국내 정보통신시장의 빠른 성장성과 생산기술 중심의 국내 산업의 비교우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신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이 공동연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거나, 공동연구소의 국내 설립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통신서비스사업자와 국내·외 통신장비 제조업체간에 수직결합 및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통신서비스사업자는 통신장비 제조업체와의 수직결합을 통하여 장비구입 비용절감과 자체 기술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

동시에 국내·외 통신장비 제조업체로서는 통신서비스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공동 개발한 제품의 구매를 상당 부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통신사업자가 통신장비 제조업체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셋째로, 정보통신에 특화된 외국인 전용공단 및 이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천안 및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전용공단의 경우 정보교류의 핵심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천 송도에 건설예정인 것은 미디어밸리내에 외국인 전용공단 설립지원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 지역은 영종도 신공항 및 고속도로가 건설중에 있으므로 수도권진입과 외

국인력의 출입국이 용이한 최적 입지라고 판단된다.

넷째로, 자금조달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고도기술 수반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원자재와 시설재 도입자금 및 국내 금융기관 차입상환을 위해 해외자금 조달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생산설비가 소요되지 않고, 중요한 투자비용이 연구개발 부문에서 발생하므로 시설재 위주로 허용되고 있는 해외자금 조달제도는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정보통신분야 외국 전문가의 국내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정보통신산업에서의 외국인투자 활성화는 단순한 자금의 유입 뿐만 아니라, 체화된 기술을 보유하는 전문인력의 유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이 원하는 외국 전문가의 고용이 보다 용이할 수 있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 고도의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외국 기업의 진출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채용의무를 면제하는 등 보다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투자유치 선행사업의 일환으로 중점 투자유치 대상국가를 대상으로 통신협력위원회 개최, 고위인사 초청 및 방문, 민관 합동의 정보통신 외국인투자 유치단 파견, 정보통신분야 외국인투자정보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우리나라 정보통신부문의 시장전망 및 투자환경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접한 우리에게 국제수지 개선과 고용창출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이러한 투자유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선진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